

건강서들의 문제점

서유헌

강원대 의대 학장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지식을 알기 쉽게 쓴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의학지식이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난해하고 복잡한 의학지식을 쉽게 소개함으로써 의학을 우리 생활 가까이 가져다 주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의학지식을 흥미위주로 너무 단순화시켜 전하다 보니 수많은 잘못된 건강지식이 이 사회에 범람하게 되어 오히려 건강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몸에 좋다고 하면 무조건 맹신하여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와 무관하지 않다. 잘못된 수많은 건강상식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권고와 처방이 잘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약물의 무분별한 복용과 오남용이 수명단축의 주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과학적 사실이나 의학적 지식은 허구나 재미보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히 씌어져야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복잡하고 오묘한 인체의 신비나 질병에 대한 지식이 비전문가에 의해 흥미위주로 과장되게 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잘못된 건강상식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복잡미묘한 인체의 신비와 건강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코미디처럼 표현되고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쉽게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다면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의사들이 의학공부를 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낼 필요성이 없을 것이고, 이미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100세 가까이 도달되었을 것이다.

평생 영어를 가르쳐 왔던 80대의 노인이 과학적 증거 제시없이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권의 건강서적을 출판하여 인기를 끌고 있는 일, 뇌를 전문적으로 연구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뇌서적을 출판하여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현실, 의사도 아닌 사람이 인체의 신비와 질병극복법을 만담식으로 이야기한 책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일,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책들의 가장 큰 오류는 복잡한 의학적 지식을 아무런 과학적 증거 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만 과장해서 단순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3대 영양소인 당과 지방이 우리 몸에 과다하게 섭취될 때만 질병에 이를 수 있는데도 당과 지방은 무조건 '독'이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엔돌핀이 많이 유리될 때는 각종 정신병 발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시사되고 있는데도 무조건 신비의 건강물질로만 이야기한다든지,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자동적으로 조화롭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절되어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도 교감신경은 나쁘고 부교감신경은 좋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을 잘 발달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너무나 단순화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잘못된 의학적 지식을 보도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 인간의 고귀한 생명이 직간접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다. 과학적 지식이 쉽게 사회에 만연되는 것이다. 의학지식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철저한 과학적 지식에 그 근거를 두고 정확히 씌어져야 한다. 이를 검증하여 바로잡아 주는 제도적 장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런 장치와 더불어 비전문가에 의해 씌어진 잘못된 건강상식을 무조건 맹신하고 따르는 우리들의 자세와 사고방식을 이제는 바로잡아 의식의 선진화를 이룰 때이다. 진정한 전문가의 활동이 제대로 평가받는 선진사회의 건설이, 현재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여러가지 부정과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리뷰 2	누가 지구의 미래를 훑치는가 '지구의 날' 맞아 지구환경보호 관련서에 관심
표지 인터뷰 3	사진집 《생, 멸 그리고 윤희》 펴낸 관조 스님
초점 4	출판사 부도 위협, 그 예방의 지름길
6	출판광고,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인가
책갈피 산책 7	소현수 지음 《마테오 리치》를 읽고 - 김문환
쟁점서평 8	"시장경제 강화는 재벌체제 변호론" - 장상환 공병호박사의 《시장경제와 그 적들》 저자 반론을 다시 반박함
출판인 칼럼 11	과학출판에 행정은 없는가 - 정해상
특집/과학기술 출판의 현주소 10	첨단시대, 과학출판은 극빈상태
12	과학기술 전문출판인 16인에게 듣는다 김대원/김형근/김홍석/라경안/박정태/손영일 신동설/이봉균/이부남/이상원/이수길/이정일 이종춘/정우영/주정희/한광희
18	과학기술서도 성의있고 참신하게 - 김두식
탐방 19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김홍석 회장 과학기술전문도매서점 '알파서적'
저자 초대 20	《책의 탄생 I·II》 펴낸 김언호 사장
베스트셀러 읽기 21	《아버지》를 읽는 두가지 새로운 시각
포럼 22	"우리 사회 지력의 밑거름은 출판" - 조 순
연재 기획 24	"기다림은 옹이같은 단단한 마음입니다" 책과 떠나는 시간여행 ⑥ 옥중서간집
서평 26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우리들의 동양철학》 - 홍원식 써로우 《자본주의의 미래》 - 강신준
27	임동욱 외 《현대출판의 이해》 - 부길만
28	야부우치 기요시 《중국의 과학문명》 - 김기협 김경수 《현대소설의 유형》 - 구모룡
출판계 소식 29	도서관 주관 맞아 행사 다채·외
이 책 그 사람 30	《20인의 한국 현대미술가》 펴낸 오광수씨 《출판기획의 테크닉》 펴낸 최봉수씨
31	《한국 무(巫)의 세계》 펴낸 조흥윤씨 《발간 분쟁사》 펴낸 김성진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책의 문화유산 ⑧